「평생학습사회」 제16권 제1호(2020. 2. 29), pp. 81-102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https://doi.org/10.26857/JLLS.2020.2.16.1.81

# 한국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발달에 관한 종단분석: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 명 희 (경희대학교)
권 선 아** (숙명여자대학교)

〈 요 약 〉

현재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문화수용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문화수용성이 발달해 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국교육개발원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1 시기에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았지만, 다문화수용성은 낮았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개념의 증가율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율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공동체의식의 경우, 중1 시기에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증가율은 다문화수용성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이상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중학생,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종단분석

* 본 논문은 2018년도 제12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양명희・권선아(2018)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 : 권선아 (skyun@sookmyung.ac.kr)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다. 1998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7년에 이르러 218만 명으로 확대되었다(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2017). 이는 전체 인구의 4.21%에 해당되는 수치로, 2020년에는 5.5%에 이를 전망이다(김지윤・강충구・이의철, 2014).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상황과는 달리 김지윤・강충구・이의철(2014)의 연구 결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대체로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었던 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주목할 사실은 젊은 세대가 '다문화가정이 증가할수록 사회 불안이 높아지고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35.2%)는 점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노출이 더 빈번한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편견 없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양성은 공동체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모인 교실 상황 또한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차경수・모경환, 2017).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문화수용성이 인종과 민족에 따라 정도가 다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 태도가 평균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성택, 2008). 다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고수하게 되면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공존이 어려워진다.

학교에서의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와는 다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적응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이수경, 2015). 정체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다문화수용성이 낮으면 또래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도 통합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하게 되는데, 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이 시기에 보이는 편향적인 사고는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학교 관련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문화적 차

이를 경험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과 존중으로 발달한다(Banks, 2008).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존재로서 청소년들의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는 중요한 교육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자아개념은 특별히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개념은 자기지각의 총체로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 내적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이 가지는 공동체의식이라는 사회환경적 특성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개인 생활이 중심이 되는 아동기와는 달리 학교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이 발달하는 시기로, 청소년에게는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자아개념(개인내적 심리적 특성 변수)과 공동체의식(사회관계적 특성)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함께 변화해 나가는지 살펴보는 데 주목적을 두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수용성을 의미하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인 태도로 나타난다(Phinney, 1990).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되는데(Hunter & Elias, 2000),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arcia, 1995). 서로 다른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을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되기도 하였는데(윤인진・송영호, 2011),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을 인종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특정 상황에서 그들을 자신의 의미 있는 타자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이자형・박현준・김경근, 2014). 이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인과 타 문화권의 사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요인,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공존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김문수, 2014).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 역량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이다. 다문화 역량의 개념에 따르면(Chen & Starosta, 1996), 다문화수용성은 인지적 요소(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 정의적 요소(문화 간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 이해, 수용하려는 동기와 관련된 것), 행동적 요소(문화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적 이슈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김동진, 2019).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해 온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식, 이해, 태도, 실천적 행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통합에 중요하다. 그렇다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다문화수용성과 자아개념·자아존중감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이 탐색되어 왔는데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가치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 또래관계, 미디어의 영향, 외국문화 경험, 연수 경험과 같은 사회적인 변인 등 다양한 요인이 대상이 되었다.

다른 문화 및 인종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해야 하는데, 실제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영미・김진석, 2015). 이러한 이유로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은화・어주경(2013)은 아동의 자아개념이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수용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개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 차원에 걸쳐 자아개념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또한 높았는데, 특히 인성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 그리고 학업적 자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용수준이 높았다고 밝힌 임소현(2008)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박수연(2017) 또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또한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수용과 관용의 전제가 될 수 있으며, 타 민족에서 보다 관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과 문화에 관용적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과는 달리 오경화(2011)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특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받아들일 때 자아개념이 높고,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한국인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한국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 및 다문화수용성의 모든 하위 차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이주영, 2018).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박혜숙・원미순(2010)도 자기효능감이 다문화수용성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은 성취도 관련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다문화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측면 교육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및 판단과 관련되는 자아개념은 아동(이주영, 2018; 장은화・어주경, 2013), 중・고등학생(이수경, 2015; 임소현, 2008), 대학생(박혜숙・원미순, 2010)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오경화, 2011) 및 국내 일반 청소년 모두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공통의 결과이기도 하다.

## 3.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이 가지는 공동체의식이라는 사회환경적 특성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개인 생활이 중심이 되는 아동기와는 달리 학교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에게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청소년

기는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과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필요하다. 이 시기에 보이는 편향적인 사고는 왕따,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학교 관련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저하하면서 결국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앞으로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시민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수용성은 공동체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는다.

공동체의식은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역사, 시간, 경험을 공유하며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최형임・문영경, 2013).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유된 믿음과 소속감 등을 제공한다. 박혜숙(2014)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지는 공동체의식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학교나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고 동질감을 확보하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촉진제 역할을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동진(2019)은 청소년의 사회관계가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다문화수용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습 활동이 원만하며 학교규칙 준수 및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고(최형임・문영경, 2013), 다문화가정 친구들과도 배경에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양계민, 2009).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을 예측하는 모델에 성별, 정보이용, 문화체험활동 등이 유의하였으나 공동체의식 변수가 투입되자 공동체의식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동체의식임을 재확인하였다(서봉언・조현미・김민영, 2015).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의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은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형성하는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은 오랜 시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발달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을 설정하고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을 종단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 변인인 자아개념과 사회적 변인인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추이를 확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단적 접근 방식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이하 종단연구 2013)」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단연구 2013」은 앞서 수행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이하 종단연구 2005)」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데이터 제공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된 국가수준의 종단 데이터이다. 「종단연구 2013」은 2013년도에 전국의 5학년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층화군집무선추출법을 통해 표본학생을 추출하였다. 즉, 모집단의 층화비율과 표본의 층화비율이 동일해지도록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사후층화에 사용된 모집단은 학생 성별, 학교설립 유형(국공립, 사립), 지역규모(특별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를 고려하여 모집단 자료의 층을 결정하였다(남궁지영 외, 2018).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에 전국 5,509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52만 4,117명 중에서 242개 학교, 8,070명의 학생이 추출되었고, 실제로 7,324명이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조사대상 학생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24명으로 구성된 표본 패널을 매년 추적하여 현재 5차 연도까지 조사되어 보고된 「종단연구 2013」의 3차 연도(2015년)부터 5차 연도(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는 연구협력교사를 통한 우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설문지는 조사 대상과 내용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장, 학교용 질문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3~5차 연도 중학생 대상 설문지에서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을 변수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6,006명으로, 남학생이 2,916(48.6%)이

었고, 여학생이 3,090명(51.4%)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 구분 / 성별 | 빈도(명) | 비율(%) |
|---|---|---|
| 남학생 | 2,916 | 48.6 |
| 여학생 | 3,090 | 51.4 |
| 합계 | 6,006 | 100 |

## 2. 연구도구

###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자신과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와 신념(김양분 외, 2016; 현주 외, 2014)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단연구 2013」에서는 「종단연구 2005」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아개념 변수는 4개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는데, 측정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변수를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개념은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 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사회 환경 내에서 자신과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신념의 정도(김양분 외, 2016; 현주 외, 2014)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 자아개념은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학습자가 주어진 가정환경 내에게서 중요 타인인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하여 형성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신념의 정도(김양분 외, 2016; 현주 외, 2014)를 의미한다. 이어서, 신체 자아개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신념의 정도(김양분 외, 2016; 현주 외, 2014)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업 자아개념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능력, 학급활동, 수업상황, 학업성취에 대하여 자신과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신념의 정도(김양분 외, 2016; 현주 외, 2014)이다.

자아개념 변인은 하위요인별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

구 2013」에서 제공하는 20개의 문항 모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문항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929에서 .93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시 말해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속감(강가영・장유미, 2013)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종단연구 2013」에서는 「종단연구 2005」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 변수는 3개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측정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은 '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학습' 등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하위요인별로 4개의 문항,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문항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889에서 .900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 3)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황정미, 2010)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종단연구 2013」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2012년 12월에 수행한 「글로벌 선도 학교 학생생활 의견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종단연구 2013」에서 사용한 이 변수는 총 2개 하위요인(즉, '외국인에 대한 인식', '외국인・다문화 친구와의 관계'),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사용한 다문화수용성 문항 중 '외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된 5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문항의 질문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일관적으로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김지윤・강충구・이의철(2014)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체로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반면, 아시아계 배경을 가진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도를 보인다. 「종단연구 2013」이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된 문항은 바로 이와 같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두 층위에 대한 문항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5개의 문항 중 아시아계 다문화가정 배경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여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3개 문항은 삭제하였다. 5문항 모두를 선택하였을 경우, 문항신뢰도가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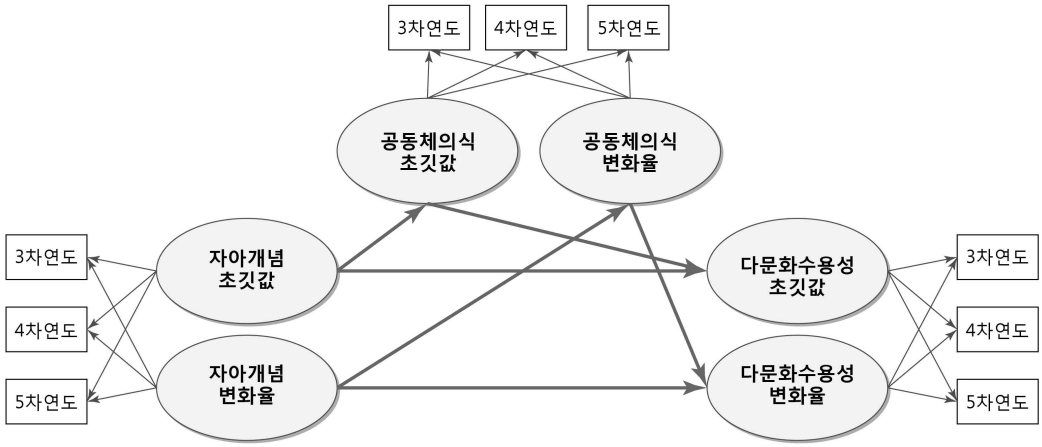
(2015년), .695(2016년), .700(2017년)이었는 데 반하여, 응답자가 혼란을 느낀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문항 신뢰도는 각각 .689(2015년), .723(2016년), .735(2017년)로 나타났다. '외국인·다문화친구와의 관계' 요인에 속하는 문항은 6문항 모두 채택하여 총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문항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817에서 .83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연구도구의 신뢰도

| 변인 | 측정내용 | 문항 수 | 신뢰도 | | | | | |
|---|---|---|---|---|---|---|---|---|
| | | | 3차 연도 (중1) | | 4차 연도 (중2) | | 5차 연도 (중3) | |
| 자아개념 | 사회 | 5 | .895 | .929 | .919 | .937 | .923 | .938 |
| | 가족 | 5 | .933 | | .941 | | .948 | |
| | 신체 | 5 | .868 | | .877 | | .886 | |
| | 학업 | 5 | .879 | | .897 | | .903 | |
| 공동체의식 | 참여의식 | 4 | .740 | .889 | .750 | .897 | .753 | .900 |
| | 타인배려 | 4 | .818 | | .835 | | .844 | |
| | 협력학습 | 4 | .771 | | .787 | | .782 | |
| 다문화수용성 | 외국인 인식 | 2 | .689 | .817 | .723 | .833 | .735 | .833 |
| | 외국인·다문화 친구와의 관계 | 6 | .913 | | .929 | | .936 | |

##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중1, 중2, 중3)의 자아개념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으로, 최소 3회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 수준에서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다(권선아·이수영, 2017). 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으로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이 있는데, 잠재변인은 다시 '초깃값'과 '변화율'로 구성되며, 초깃값와 변화율은 매회 측정되는 종단자료에 근거해 추정한다. 초깃값은 첫 번째 시점의 수치로 절편을 의미하고, 변화율은 기울기를 의미하며 이 두 요인의 해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김계수,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4. 분석방법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이 연구모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초통계를 검토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 변수들의 잠재성장모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측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한 후 보다 적절한 값을 보고한 각 변수들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변수들의 선형변화 모형을 종합하고 각각의 경로를 연결하여 변수들 간 초깃값과 변화율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잠재성정모형의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 Ⅳ.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자아개념은 3차 연도 3.60, 4차 연도 3.92, 5차 연도 3.89로 3차 연도에서 4차 연도 사이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4차 연도와 5차 연도 사이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체의식의 경우, 3차 연도 3.87, 4차 연도 3.88, 5차 연도 3.90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역시 3차 연도 4.00, 4차 연도 4.03, 5차 연도 4.06으로 3년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댓값 2.0, 7.0 이하로 나타날 때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따라서 본 자료는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표 3〉 변수별 기술통계

| | N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자아개념(3차 연도: 중1) | 6,006 | 1.25 | 4.5 | 3.60 | .52 | -.30 | -.16 |
| 자아개념(4차 연도: 중2) | 6,006 | 1 | 5 | 3.92 | .61 | -.21 | -.16 |
| 자아개념(5차 연도: 중3) | 6,006 | 1 | 5 | 3.89 | .63 | -.19 | -.10 |
| 공동체의식(3차 연도: 중1) | 6,006 | 1 | 5 | 3.87 | .59 | -.09 | -.00 |
| 공동체의식(4차 연도: 중2) | 6,006 | 1.17 | 5 | 3.88 | .60 | -.05 | -.21 |
| 공동체의식(5차 연도: 중3) | 6,006 | 1 | 5 | 3.90 | .61 | -.17 | .13 |
| 다문화수용성 (3차 연도: 중1) | 6,006 | 1.5 | 5 | 4.00 | .61 | -.13 | -.50 |
| 다문화수용성 (4차 연도: 중2) | 6,006 | 1 | 5 | 4.03 | .62 | -.20 | -.33 |
| 다문화수용성 (5차 연도: 중3) | 6,006 | 1 | 5 | 4.06 | .63 | -.26 | -.36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표 4〉 주요 변수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자아개념 (3차 연도: 중1) | 1 | | | | | | | | |
| 2. 자아개념 (4차 연도: 중2) | .665** | 1 | | | | | | | |
| 3. 자아개념 (5차 연도: 중3) | .593** | .684** | 1 | | | | | | |
| 4. 공동체의식 (3차 연도: 중1) | .676** | .488** | .425** | 1 | | | | | |
| 5. 공동체의식 (4차 연도: 중2) | .506** | .658** | .495** | .589** | 1 | | | | |
| 6. 공동체의식 (5차 연도: 중3) | .462** | .511** | .661** | .523** | .610** | 1 | | | |
| 7. 다문화수용성 (3차 연도: 중1) | .423** | .293** | .251** | .517** | .373** | .345** | 1 | | |
| 8. 다문화수용성 (4차 연도: 중2) | .305** | .383** | .270** | .355** | .519** | .373** | .547** | 1 | |
| 9. 다문화수용성 (5차 연도: 중3) | .286** | .310** | .374** | .338** | .396** | .517** | .491** | .570** | 1 |

** $p<.01$

## 2. 모형검증

자아개념의 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초깃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을 검토한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자아개념의 초깃값은 평균 15.78($p<.001$), 분산 4.05($p<.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10($p<.001$), 분산 .49($p<.001$)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자아개념은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년 .10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깃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자아개념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식에서는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공동체의식의 초깃값은 평균 11.61($p<.001$), 분산 2.06($p<.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05($p<.001$), 분산 .25($p<.001$)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년 .05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깃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공동체의식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의 모형을 검토한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초깃값은 평균 11.49($p<.001$), 분산 2.55($p<.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03($p<.001$), 분산

.30($p$=.074)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이 나온 것을 통해서 다문화수용성은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사한 값을 매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깃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다문화수용성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모형 검증

| | | $X^2$ | $df$ | CFI | TLI | RMSEA | 평균 | | 분산 | |
|---|---|---|---|---|---|---|---|---|---|---|
| | | | | | | | 초깃값 | 변화율 | 초깃값 | 변화율 |
| 자아개념 | 무변화 | 193.31*** | 4 | .97 | .98 | .88 | 15.68*** | | 3.84*** | |
| | 선형변화 | .21 | 1 | 1.00 | 1.00 | .00 | 15.78*** | -.10*** | 4.05*** | .49*** |
| 공동체의식 | 무변화 | 94.93*** | 4 | .98 | .98 | .06 | 11.65*** | | 1.87*** | |
| | 선형변화 | 3.54 | 1 | .99 | .99 | .02 | 11.61*** | .05*** | 2.06*** | .25*** |
| 다문화수용성 | 무변화 | 26.23*** | 4 | .99 | .99 | .03 | 11.51*** | | 2.21*** | |
| | 선형변화 | 3.04 | 1 | .99 | .99 | .01 | 11.49*** | .03 | 2.55*** | .30*** |

*** $p<.001$

## 3. 자아개념,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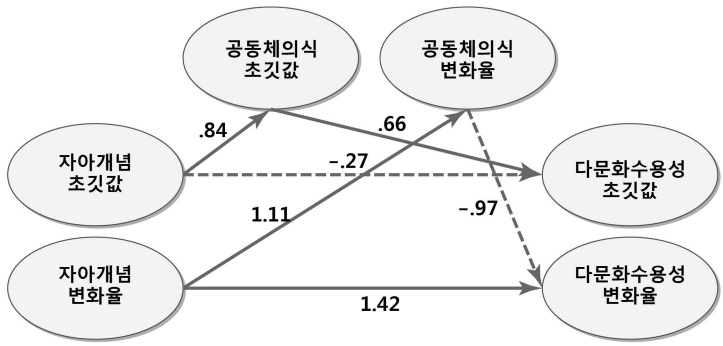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또한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검증한 3개의 단변량 모델을 결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자아개념의 초깃값과 변화율이며, 종속변수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초깃값과 변화율이다. 이때 공동체의식의 초깃값과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깃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값은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자아개념의 초깃값이 공동체의식의 초깃값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84, $p<.001$), 자아개념의 변화율 역시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1, $p<.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중1 시기에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자아개념의 증가속도(=변화율)가 높아질수록 공동체의식의 증가속도(=변화율) 역시 높아지는 것을 예측해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 *B* | *β* | *SE* | *p* |
|---|---|---|---|---|
| 자아개념 초깃값 → 공동체의식 초깃값 | .642 | .84 | .010 | *** |
| 자아개념 초깃값 → 공동체의식 변화율 | -.062 | -.24 | .006 | *** |
| 자아개념 변화율 → 공동체의식 변화율 | .779 | 1.11 | .032 | *** |
| 자아개념 초깃값 → 다문화수용성 초깃값 | -.204 | -.27 | .035 | *** |
| 자아개념 초깃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 .004 | .02 | .023 | .862 |
| 자아개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 .647 | 1.42 | .174 | *** |
| 공동체의식 초깃값 → 다문화수용성 초깃값 | .669 | .66 | .046 | *** |
| 공동체의식 초깃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 -.085 | -.39 | .032 | ** |
| 공동체의식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 -.626 | -.97 | .251 | * |

* $p<.05$, ** $p<.01$, *** $p<.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자아개념의 초깃값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 -.27, $p<$ .001), 자아개념의 변화율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beta$ =1.42, $p<.001$). 즉, 중1 시기에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자아개념의 증가속도(=변화율)가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속도(=변화율)가 높아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중1 시기의 공동체의식의 성장요인은 다문화수용성의 성장요인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중1 시기에 공동체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beta$=.66, $p<.001$). 그러나 중1에서 중3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적 영향을 준다($\beta$= -.97, $p<.05$). 즉, 공동체의식의 증가속도(=변화율)가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의 감소속도(=변화율)가 높아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자아개념이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종단연구 2013」 패널의 3차 연도(2015년), 4차 연도(2016년), 5차 연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1의 자아개념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의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매년 .10씩 감소)을 보였다. 반대로 중1의 공동체의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경향(매년 .05씩 증가)이 나타났고, 다문화수용성은 학년이 높아져도 매해 큰 변화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1 시기에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동체의식 또한 높았는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1 시기에 자아개념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개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식의 경우, 중1 시기에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아개념의 변화가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 간의 정적 관계뿐 아니라 자아개념의 변화는 이후 공동체의식의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1 시기의 자아개념은 공동체의식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개념의 변화는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개념이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임선정(2015)의 연구 결과와도 견해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속감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양영미・김진석, 2015)와도 일치한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과 인식을 가질수록 자신이 속해 있는 타인과 공동체를 더 이해하고 소속감을 지각하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관계는 정적으로 함께 발달해 나가므로,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업적 자아개념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학교학습이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나 타인과

의 비교와 경쟁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개인으로서 삶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관이나 태도의 함양이 필요하다. 노력에 의해 성취가 가능하며, 작은 성공 경험들을 체험하기 위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평가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적인 지원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1 시기의 자아개념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자아개념의 변화는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을 보여 준 박수연(2017), 이주용(2018) 등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횡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1 시기의 자아개념과 다문화수용성 간에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이러한 부적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보면 다른 관계 양상을 나타낸다. 즉, 자아개념의 변화가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위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 결과는 중학교 1학년은 10대에 막 진입하여 아직까지 인지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아개념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 또한 높아지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이상의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는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중1 시기의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양계민, 2009; 박혜숙, 2014; 서봉언・조현미・김민영, 2015)들과 맥락을 같이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관계가 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독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종단적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청소년들의 소속 집단에 대한 연대감과 소속감이 높아지면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변화는 반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중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동체의식이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되는 모습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자신과 동질적인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결과가 중학교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사춘기의 정점으로서 학교 내에서도 왕따, 학교폭력 등의 학교 문제가 비교적 빈번한 시기이기도 하다.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발달상 과도기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중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

후 사회에 나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KELS 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통해 자료가 일관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문항들이 중학생 시기에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KELS가 최근 수집한 데이터(2015~2017년)를 토대로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배경변인(예: 성별, 거주지규모, 소속학교 형태)에 따른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조사 도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윤・강충구・이의철(2014)이 '20~60대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 변인의 하위변인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결혼이주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인의(특히 청년세대인 20~30대)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결혼이주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배경을 지닌 이웃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단연구 2013」의 다문화수용성 변인 역시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다문화친구와의 관계'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문항 속에서 일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배경을 지닌 이웃 및 친구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서, 10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사도구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가영 · 장유미(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권선아 · 이수영(2017).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이 중학생의 창의성과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0**(3), 35-46.

김계수(2009).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동진(2019).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잠새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문수(2014).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36-64.

김양분 · 남궁지영 · 박경호 · 최인희 · 강호수 · 김미숙 · 이규민(2016).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Ⅳ) 조사개요 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지윤 · 강충구 · 이의철(2014). **닫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인식과 정책.**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남궁지영 · 김혜자 · 박경호 · 송승원 · 김양분(2018).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성장.**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박수연(201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혜숙(2014).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44**, 5-33.

박혜숙 · 원미순(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서봉언 · 조현미 · 김민영(2015).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19**, 181-207.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양명희 · 권선아(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학생의 자아개념,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간의 종단관계분석. **제12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1**, 189-208.

양영미 · 김진석(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오경화(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윤인진 · 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이수경(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이자형 · 박현주 · 김경근(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이주영(2018).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선정(2015). **청소년 자치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성택(2008).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한국 학생들의 국제교류 수용도 분석: 교류영역 및 대사 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8**(2), 1-20.

임소현(2008). **자아존중감이 타민족·문화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시아인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은화·어주경(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정치료학회지, 21**(3), 289-305.

차경수·모경환(2017).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최형임·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1), 189-209.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2017). 2017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076&group=D (검색일: 2019. 9. 15).

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2014). **초·중등학생 인성수준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Banks, J. A. (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er, 37*(3), 129-139.

Chen, G. M., & Starosta, W. J. (1996).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 synthe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19*(1), 353-383.

Garcia, M. H. (1995).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multicultural diversity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4), 490-504.

Hunter, L., & Elias M. J. (2000). Interracial friendship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competence: How are they relat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51-573.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저 자 정 보

성　　명: 양명희 (Yang, Myong Hee)
소　　속: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연 락 처: clara@khe.ac.kr
연구분야: 교육심리,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정서

성　　명: 권선아 (Kyun, Suna)
소　　속: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연 락 처: skyun@sookmyung.ac.kr
연구분야: 교육공학, 고등교육, 다문화교육

<Abstract>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Self-Concept and Community Consciousness

**Myong Hee Yang** (Kyung Hee University)
**Suna Ky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urrently, Korean society is rapidly enter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for the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developing, using panel data from KEDI.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self-concept in the first grade,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but the lower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However, as students' grade goes up, the growth rate of self-concept was all related positively with the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But, while the higher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 first grade, the higher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growth rate of sense of community was rela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nce negatively as their grade goes 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were discussed.

•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community consciousness, multicultural acceptance, longitudinal analysis

접 수 일: 2019. 12. 28
심 사 일: 2020. 1. 22
게재확정일: 2020. 2. 5